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6.51	↓ 코스닥	829.74
	(-13.55)		(-6.11)
↑ 금리 (국고채 9년)	3.273	↑ 환율	1324.80
	(+0.017)		(+0.90)

중소기업인대회
5대그룹 총수 참여
대통령실서 화합 이룬다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K-반도체, 中 장비반입 완화되나... 美, 별도기준 검토

美, 對中 장비반입 규제 완화시
범용제품 제작에 무리 없을 듯

증권가, 반도체 3분기 저점 예상
삼성 '감산 효과' 본격화 기대 속
경기침체로 완전한 업턴은 비판

반도체 업계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이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장
비 반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첨단 반
도체 장비 반입을 통제하는 규제를 시
작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1년간 유예를 적용했지만, 기간이 끝나
는 오는 10월부터는 추가로 장비를 반
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최근 미국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불확실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는 문제는 여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
금에 적용하는 가드레일 조항에도 중국
투자 제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중국 의
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막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수준을 정하는 대
신, 기간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내
용을 검토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현실화하면 중국 공장을 첨단
기지로 활용하기는 여전히 어렵겠지
만, 범용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
국 현지 공장을 레거시 제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은 128단 낸드플래
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2세대 10나노
(1y)급 D램과 함께 인텔에서 인수한 다
렌 공장에서는 144단 낸드까지를 만들
어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로 규정한
제한 수준이다. 최첨단 노광장비인 AS
ML EUV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UV 없이도 생산 효율을 높일 대안
도 새로 마련되고 있다. 아직 심자외선
(DUV)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방침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본 캐논
이 만드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IL)장비 도입도 꾸준히 거론된다.



‘취임 1주년’ 尹 대통령, 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 우시팩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전방
산업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다. 구글이 신형 스마트폰 ‘픽셀 폴드’
를 공개할 예정, 중국 바이두도 스마트
폰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등 신제품 출
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저점에 다가왔다는 분
석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최근 컨퍼런스콜에 2분기 부
터는 반등을 점친 가운데, 증권가에 이

어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반도
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
서를 통해 3분기 전에 저점에 근접할 것
으로 내다봤다.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교체 주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다. 삼성
전자가 단행한 감산 효과도 조만간 본
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업턴’까지는 시간이 필
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메모리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요가 늘지 않으면 가격도
오르지 않는 탓에 내년까지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트렌드포스는 전분기 대비 2
분기 D램 평균판매가격(ASP) 하락폭
을 최대 15%에서 18%로 확대 전망했
다. 수요 축소를 감산 효과로도 상쇄하
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 금융지원에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잠재부실 ‘공포’

윤석열 정부 1년과 금융

〈下〉돈 풀고 빚 늘고

건축 경영에 물가 관리는 선방
눈덩이 대출에 부실 우려 높아

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긴
축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
은 물가 안정이었다. 물가는 6%대에서
3%대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나라빚 증가와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 감소... 나라빚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
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 대비 3.
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

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물가상
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
(3.7%)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초
3%대를 시작으로 윤 정부가 출범한 5
월 5.4% 기록 후 7월 6.3%까지 치솟으
면서 외환위기(1998년 11월) 당시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 1월(5.2%), 2월(4.8%), 3월
(4.2%)까지 떨어지더니 지난달 3.7%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국이 여전히 5%대 고물가
가 지속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선방했다는 분석
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
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43만)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원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국
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
지 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
를 이어갔다.

기재부관계자는 “경기·금융시장·물
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
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
이고 잠재 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
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
했다.

◆ 코로나 대출 부실 뇌관 우려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
료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부실이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건수는 지난 4
일 기준 25만 9594건으로 대출 잔액은
36조6206억원이다.

만기연장 액수는 34조8135억원으로
대출 원금·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액수
는 각각 1조5309억원, 2762억원으로 집

계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
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
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9월말까지 6
개월만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장기
화로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고 오는 9
월 종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활용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차주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기존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
로 바꾸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
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준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정부 1년 개혁 성과... ‘잘했다’
41.3% ‘잘못했다’ 55.4%
▲ 국힘, 내달 초까지 최고위원 보궐선
거... 태영호 빈자리 채워 /사진 뉴시스

▲ 국방연구원 “美 자산배치 상시화 등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 北,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주변 잔해
정리...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연관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자 조사 /사진 뉴시스
▲ 김관진 전 국방장관 尹 국방혁신위 부
위원장급 위원 내정

中企인대회 5대그룹 총수 참여, 대통령실서 화합 이룬다

오는 23일 중소기업인대회 예정
내수 활성화 등 경제회복 방점
“현 정부 친기업적 행보에 박수
현안 해결, 대·중기 상생 기대”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도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해 대·중소기업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사가 열린다. 날짜는 23일이 유력하다.

10일 중소기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23일 예정된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 5대 그룹 총수는 지난해 5월 25일 열린 33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핸드프린팅 등을 하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과 상생을 다짐한 바 있다.

매년 5월 셋째주는 법정 행사인 ‘중소기업주간’이다.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 등을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금탄산업회장 수상자인 후보원 상홍열처리 대표, 구광모 LG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기중앙회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인대회도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윤 정부 출범 첫 해와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60주년이 맞물리면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청와대까지 포함하면 6년만에 대통령과 함께 한 중소기업대회가 됐다. 특히 중소기업계 대표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가 처음이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관련 행사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방명록에 ‘기업과 정부가 윈윈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들시다’라고 적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열릴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현 정부가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안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고, 특히 해묵은 과제인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빨리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꾸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활성화 등에 방점

이 맞춰질 전망이다.

2년 연속 대통령실에서 열릴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도 유공자 포상 뿐만 아니라 내수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미래비전 선포 등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주간 행사 기간인 오는 17일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금천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는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등의 분야에서 5% 성장을 이루자는 캠페인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 중소기업계가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주간에는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15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토론회(17일) ▲50인 미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현황 및 과제 토론회(18일)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21일)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前 정부 4대강 보 해체, 과학적 결정 아냐”

한화진 환경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주민들에게 훌륭한 물 저장시설
부유물질 등 비교뎀 수질 좋아져”

“환경, 이분법적 아닌 균형 이뤄야
용산 어린이공원, 위해성 없어”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전 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동안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가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이) 다목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보 같은 경우는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면서 “4대강 보라는 물그릇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훌륭한 물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천의 어떤 수질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보 인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연구 결과를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TP(총인) 3종을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게 가장 최근 모니터링된 결과”라면서 “저는 항상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해왔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라서 저는 이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용산 어린이정원의 유해성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cm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했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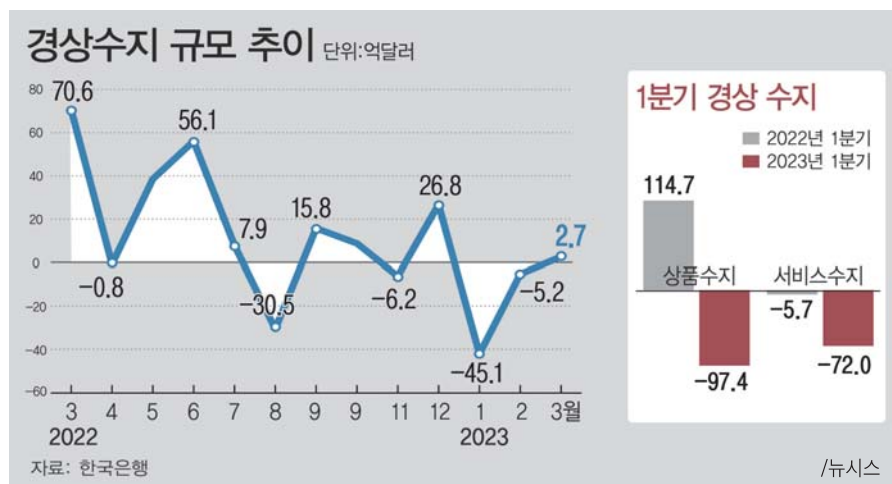
그러면서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 3회, 25년간’을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하루 9시간 근무, 주 5회, 25년간’으로 가정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발표해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7일 최근 6개월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을 23개사 중 19개사가 납부했고, 옥시 등 4개사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오는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슴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23개사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납부 시 국제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은 환경의 사각지대 부분도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걱정하는 도서 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얼마 전 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했던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환경정책의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 지역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보전안전망 대책 등 따뜻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3월 경상수지 2.7억달러 ‘흑자전환’

한은, 1년전 보다 65억달러 감소
상품·서비스수지 30.3억달러 적자

지난 3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해외 배당소득 등이 늘며 석달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수출부진이 이어지며 상품수지는 11억 3000만달러,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서비스수지는 19억달러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65억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가지로 나뉘며, 한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현지법인으로도 많이 나가 있어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금불산입제도로 본원소득수지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등을 중심으로 36억 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국내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수취한 임금과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이, 국내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에 얻은 이자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신 경제통계국장은 “투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수지가 1년전과 비교해 28억 6000만달러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수익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계정 등으로 인한 혜택으로 연간전체 수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매출 7.4兆·영업익 1362억 ‘신기록’

1분기 실적 美 증권거래위 제출

국내 매출 74위… 이마트 추격
커머스 부문 매출 전년比 15% ↑
김범석 의장 “성장세 이제 시작”

창립 13년차를 맞은 쿠팡이 분기 매출 7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원의 35%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쿠팡이 10일(한국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쿠팡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조 3990억원(58억53만달러·분기 환율 1275.58원 기준)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다.

3분기 연속 영업흑자 성장세도 유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362억원(1억677만달러)로 지난해 영업손실 2478억원 대비 약 154.9%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037억원과 4분기 1133억원 영업흑자 기록을 견실히 이었다. 분기 영업이익 1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기 순이익은 1160억원(9085만달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521억원이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컨퍼런



김범석 쿠팡inc 의장

스콜에서 “전체 유통시장보다 몇 배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활성고객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신사업에 수익달러를 투자했음에도 전체 사업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 성과 내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나 쿠팡이츠, 와우멤버스(유료멤버십) 수익이 아닌 제품 커머스 운영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고객 경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마진 개선을 달성했다”고도 덧붙였다.

커머스 부문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7조2176억원(56억5834만달러), 조정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차감전영업이익)마진율



쿠팡 트럭이 이동하고있다. 쿠팡은 1일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알렸다. 올해 쿠팡은 주요 물류센터 건립이 완료 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3자 물류 서비스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은 지난해 4분기와 같은 5.1%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0.1%에서 5%p 개선됐다.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활성고객은 1901만명으로, 전년 동기(1811만2000명) 대비 5% 늘었다. 1인당 고객 매출은 38만905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OTT서비스 쿠팡플레이와 배달 앱 쿠팡이츠, 해외사업, 핀테크 등 신사업 손실 규모도 축소돼 조정 EBITDA 손실은 605억원(4745만 달러)을 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은 것

이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을 자신했다. 그는 “로켓그로스를 통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났고, 앞으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로켓배송 선택지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사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쳤다.

쿠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누적적자가 약 6조원에 달했다. 2015년 김 의장이 ‘계획된 적자’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물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매년 적자

가 확대되자 유통가에서는 흑자가능성을 낮게 점치기도 했다. 물류센터 확대를 위한 과도한 투자와 배송 역량 재고를 위한 인력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자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당시 김 의장은 “2022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EBITDA 7~1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4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1분기 앞당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쿠팡은 연간 영업손실 144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조7907억원 대비 92% 손실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국딜로이트그룹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국내 매출 상위 250대 기업 중 74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유통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한 이마트(전체 60위)와 근소한 수준까지 따라잡아 1위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나홀로 통화완화… 위안화 가치 ‘뚝뚝’

● 차이나 뉴스&리포트

경기회복 우려, 지정학적 갈등 겹쳐
8일 기준 달러화 대비 0.23% 하락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홀로 통화완화를 택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갈등까지 부담이 됐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위안화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지난 8일 기준 0.23% 하락했다. 연조만 해도 달러화 대비 강세가 가팔랐지만 이후 이어진 약세 흐름에 연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인덱스가 4.9% 하락했지만 위안화의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폭은 0.7%에 불과했다.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지수도 올해 초 100.3에서 지난 5일 기

준 99.27로 하락했다.

위안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정책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유동성 공급을 선택하면서 내외 금리차는 벌어졌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매력도 그만큼 떨어졌다.

여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회복과 다시 불거진 미·중 갈등 역시 위안화를 끌어내렸다.

국제금융센터 김진경 책임연구원은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호조를 보였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경기회복이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경상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경제지표가 더욱 개선되어야 위안화

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이대(對)중 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중국 투자에 걸림돌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중 투자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도 당분간 위안화 약세를 점치는 곳들이 늘고 있다.

JP모건과 노무라, HSBC, 씨티 등은 미중 갈등과 제조업 경기 및 수출 둔화 가능성을 이유로 달러·위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김 연구원은 “아시아 역내 통화들은 위안화에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만큼 위안화 환율 흐름에 따른 파급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기회복이 서비스 부문 등 내수에 집중되면서 그 영향이 아시아 전반으로 파급되지 못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출 연체율 ‘썰렁’… 금융권, 긴장감 고조

>> 1면 ‘尹정부 1년과 금융…’서 계속

문제는 금융지원에 의한 착시현상이 지속되면서 잠재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에 이어 1000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8.9% 늘어났다. 또한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 포인트(p) 증가했다.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부실

뇌관이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에서는 연장만 5차례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지원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도 않고 금융권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금융권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제조사	대상	결함장치	대수
기아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190,841
메르세데스벤츠	E 220D 등 8종	고압연료펌프	20,547
현대차	파비스·엑시언트	배터리 스위치	16,099
	뉴 카운티·카운티	좌석안전띠 리트렉터	65
한국지엠	볼트 EV·볼트 EUV	고전압 배터리	1,467
스텔란티스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	33

*제작일자에 따라 모델 상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완성차 5개社 22.9만대 리콜

각사별로 무상수리 실시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GM,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종, 22만 9052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들 차량의 제작결함에 대해 9일부터 각사별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의 경우 카니발 19만841대(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가 문 사이에 끼여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7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와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C220d 등 8개 차종 2만 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공정상 문제가 생겨도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능력) 부족에 따른 마모로 오는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트럭 파비스 등 2개 차종 1만6099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

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쌓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 65대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탑승자 몸에 맞게 좌석 안전띠를 조절하는 장치) 부품 조립에 불량이 있어 리콜 후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은 11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전기차) 등 2개 차종 146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음극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무상 수리는 이날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DS4 크로스백 1.5 블루HDi FCYHZ 33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이 누락, 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연명의료 중단여부’ 언제든 결정 가능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중〉 연명의료결정법 과제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 6년차를 맞아 실시되고 있으나,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의식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의 환자는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철회는 자유, 다시 묻지는 않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 흉부압박으로 갈비뼈 골절, 혈흉·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손실·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전문소생술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 : 출혈, 응고장애, 도관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 혈액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과다출혈 시 치료방법 부작용 : 미열이나 피부발진, 체액과부하 등 발생 가능, 부적합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손상 등 문제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증 및 출혈 발생 가능

이외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

자료/보건복지부

2023년 4월 기준 19세 이상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174만4002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연명의료 결정 의사를 다시 묻는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전의료지시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

건의료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의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증 등을 받아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게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한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올 4월 기준, 174.4만건 의향서 등록
변경·철회 의사표시 법적 규율 없어
독일·오스트리아 등 상세 규정 뒤

일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한 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환자의 의사결정상실에 대비해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意思)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나 선호도를 진술하는 ‘가치의향진술’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의향진술’ 함께 작성한다. 성인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법학논단.2020)’이란 논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이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주기를 정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처음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연명의료결정제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의향서를 작성하는 70~80%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향서 작성 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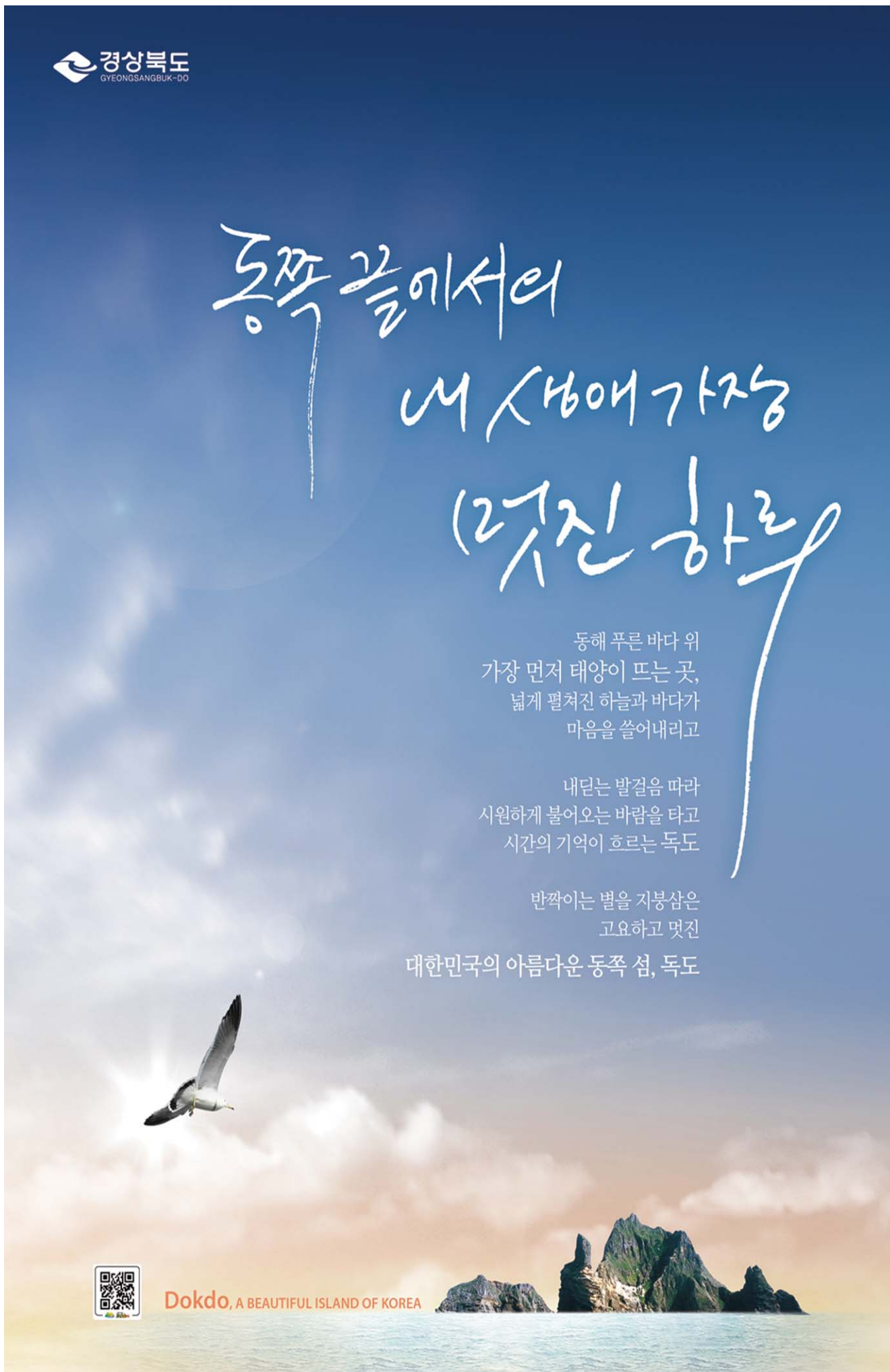
◆가족 없는 1인가구·무연고자 문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자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1인가구나 무연고자는 진술이나 합의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서 빚겨난다.

무연고자 등은 합의 가족 없어
대리인 도입 등의 대변인 필요
국회, 해결 위한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인을 도입한다거나 의사를 누군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나 무연고자가 의식 불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을 잃기 전에 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성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국회서 연명의료결정제 전시회·상담소 열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박태홍 기자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김기현, 민생현장 동분서주…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

〈국민의힘 대표〉

직접 현장 챙기며 정책 발굴 나서
정부 뒷받침, 내년 총선 대비 풀이
당 지지율 상승세 지속 여부 귀추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는 가족 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청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미래세대와 소통 등 맞춤형 격주 1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민생 현장을 챙기면서 정책 발굴에 뛰어들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출범시킨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온라인 신문고에서 접수한 국민 건의 사항들을 논의한 뒤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할 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획이다. 민생119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에서 받은 제안 119건을 정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

건), 출산·육아(3건) 등 순으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회의 당시 정리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 정책에 대해 5월 말까지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당 정책위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책위

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김 대표는 10일 “정상 작동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부터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 이날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잘못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엄중하게 새겨들겠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면서,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당은 민생 행보와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기현 지도부가 서진 전략으로 당 지지율 반등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돌

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원내 대책회의 때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9.4%, 더불어민주당은 30.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22~24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4.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회동

李 “국회 전 예산협의회” 洪 “달빛내륙고속철도 처리”

민주당 대표 대구시청 첫 방문
지역현안, 중앙정치 등 의견 나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 총생산(GRDP)을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모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산자부 2차관 강경성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58·사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권전기공과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강 신임 2차관은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봉화광산 매몰 사고 당시 고립 22시간여 만에 생존한 광부들에게 부친이 광부였던 강 비서관을 직접 보내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회사무처 의정활동 데이터 개방 확대

국회사무처가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정보, 의정활동 내용,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정보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정보 공개 개방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익 기자

태영호 “모든 논란, 전적으로 제 책임… 최고위원직 사퇴”

“당, 정부, 대통령실에 큰 누 끼쳐
진심으로 사죄… 백의종군 할 것”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

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

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태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근 이진복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이 연루된 공천 녹취록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을 의

식한 듯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태 의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세계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원지 | 빠니보틀 | 곱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 2배 급증 자산 건전성 비상… 허리띠 질끈

중소 대출연체율 1년새 크게 늘어
부실채권 증가에 NPL 비율도 ↑

9월 코로나 이자상환유예 종료시
대규모 연체 부실 시한폭탄 우려
충당금 확대 등 긴축경영 총력

주요 지방금융지주사가 최근 실적 방어에 성공했음에도 부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2배 이상 치솟으며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방금융사들은 충당금 규모를 크게 늘리며 당분간 긴축 경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의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 지방은행, 연체율 상승

은행별로 살펴보면 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37%에서 올 1분기에 0.79%로 크게 뛰었다. 전북은행의 연체율도 0.43%에서 0.82%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지난 2022년(0.63%)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은행의 연체율 역시 0.21%에서 0.34%로 상승했다.

이와함께 지방은행들의 부실채권도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이자여신(NPL) 비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지방은행들의 부실채권은 지난해에만 16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왼쪽부터)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5대 지방은행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고정이자여신(NPL) 잔액은 86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3%(1689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 상황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기업·가계대출 상환 여력이 모두 악화된 탓이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조치까지 종료되면, 대출 연체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지방 금융지주사들이 충당금을 적극 쌓으며 부실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대 지방금융지주사(BNK·DGB·JB금융)가 지난 1분기에 쌓은 충당금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에 이른다. 총 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1610억원) 대비 102.2% 늘었다.

◆ 충당금 늘려 부실 대비

올 1분기 충당금전입액은 DGB금융지주가 1104억원으로 158.5% 늘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 JB금융지주도 903억

원으로 147.4% 증가했으며 BNK금융지주는 1249억원으로 52.7% 늘었다.

최근 지방금융사들의 비용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체율 확대 우려와 수익성 악화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긴축 경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올 1분기 3대 지방 금융지주사의 평균 CIR(영업이익경비율)은 42.1%로 1.9%포인트(p) 개선됐다. DGB금융의 CIR이 41.6%로 6.5%p 하락했으며, JB금융은 39%에서 38%로 1%p 내려갔다. 반면 BNK금융은 44.8%에서 46.8%로 2.0%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금융권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지방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를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B손보, 미혼한부모가정 10억 후원

보험 브리핑

코리안리재보험 창립 60주년
금융권 싱가포르 IR 행사 참석

KB손해보험이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에 나섰다.

◆ 후원금 및 ‘365베이비케어카드’

KB손해보험이 한부모의 날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수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달된 기금은 미혼한부모가정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긴급양육물품인 ‘365베이비케어카드’를 직접 포장했다. 카드에는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으로 구성했다.

지난 2014년 홀트아동복지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10년째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리안리재보험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해외진출 의지를 표명했다.

◆ 금감원·금융사 공동 주최 투자 설명회

코리안리재보험은 싱가포르 팬퍼시픽(Pan Pacific) 호텔에서 개

가정 아동지원 후원금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와 이수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손보

최한 금융권 공동개최 해외 IR 행사인 ‘인베스트 K-금융 싱가포르 2023’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코리안리를 비롯한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최훈 싱가포르대사와 로널드 웅(Ronald Ong) 모건스탠리 동남아시아 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동 Q&A 세션’으로 이어졌다. 본 세션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재보험 시장 및 공동 재보험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재보험시장의 시장 수급 불일치 현상 심화로 재보험 요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함영주 “글로벌 이익 비중 40%까지 확대”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 싱가포르 IR 행사 참석
하나원큐 종합자산관리 앱 고도화
빅테크 플랫폼 제휴 고객접점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팬퍼시픽 호텔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사 6곳과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IR)’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외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공동 Q&A 세션’에는 금융사 CEO들이 직접 패널로 참석해 투자자 등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이 오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 금융회사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투자자의 질문에 “현지 금융기관에 소수 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그룹이 보유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



국내 금융사 CEO들이 패널로 참석해 함께 진행한 ‘공동 Q&A 세션’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그룹 글로벌 및 디지털 전략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나금융

명했다.

함 회장은 “이러한 전략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빅테크 회사의 본격적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출로 인해 금융 산업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금융은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종합자

산관리 앱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빅테크 플랫폼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사용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 회장은 1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과의 조찬 미팅을 갖고, 글로벌 경기 전망과 한국 경제, 금융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개방된 규제 환경, 기업 친화적인 세금 시스템, 기술 혁신을 위한 풍부한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금융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함 회장은 “글로벌 현장 중심의 경영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IB·자산운용 등 핵심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하나금융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농협銀, 기보와 中企 지원·육성 협약

ESG 경영실천 기업 등 대상
1711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NH농협은행이 171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 지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복합경제위기 극복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NH농협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상호 협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3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1711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상기업 ▲ESG 경영실천 기업 등이다. 보증비율상향(100%), 보증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신한銀 “창구 출금, 얼굴로 인증하세요”

금융권 최초 얼굴 인증 서비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생체 정보 중 얼굴을 활용한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는 고객의 고유 생체 정보인 얼굴 인증을 통해 신분증, 통장, 카드 등 출금 매체 없이 편리하게 출금할 수 있다. 고객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얼굴 인증 및 출금한도 등록은 전국 영업점 창구, 신한솔(SOL), 스마트 키오스크, 디지털 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 정보를 활용한 ATM 이상행동 탐지 등 고객보호 활동에도 바이오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바이오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엔데믹 훈풍 탄 LCC, 1분기 실적 ‘역대급’… 2분기는 글세

티웨이·진에어·제주항공 등 ‘호조’ 여행 수요 넘치고 무사증 관광 재개 1분기 사상 최대실적 줄줄이 달성 2분기 항공 비수기 고객 잡기 나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엔데믹 해외여행 수요 폭발로 부활을 알렸다. 티웨이항공·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 등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호조를 보였고,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내외적 담금질에 나서며 향후 실적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항공사들도 2분기는 1분기와 같은 성적을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LCC들의 실적이 회복세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적중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쌓인 여행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 일본, 대만, 마카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무사증 관광을 재개하면서 하늘길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항공기. /각사 제공

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1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액 3588억원, 영업이익 827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무려 500% 급증한 수치다.

진에어는 올해 1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액 3525억원, 영업이익 849억원, 당기순이익 6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 현황을 알렸다. 진에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2% 증가, 2개 분기 연

속 흑자라는 ‘뽕거’를 달성했다.

제주항공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4223억원, 영업이익 707억원을 올렸다. 특히 매출은 지난해 4분기 2994억원보다 41% 늘었고,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 1분기 3929억원도 넘어서는 결과를 얻었다.

에어부산은 올해 1분기 매출 2131억원, 영업이익 478원을 기록, 분기별 최대 매출과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해보면 국내 LCC들의 국제선 공급액은 지난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CC의 국제선 공급액은 2019년 1분기 대비 최대 88.7%까지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만 따지면 2019년 4월 528만843명이 LCC를 이용했고, 올해는 522만6967명이 탑승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2분기 분위기는 1분기처럼 ‘훈풍’이 불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LCC 간의 출혈경쟁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대비해 공급을 늘렸지만 전통적인 항공 비수기인 2분기에 접어들자 여행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부 항공사는 ‘0원 항공권’(편도) 마케팅까지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여러 제휴 프로모션을 통해 잠재적인 여행객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항공사들은 한중 관계가 풀

려 ‘유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 수요를 기대했지만 비자가 발급과 관련해 ‘언제 풀린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 프로모션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비자 문제가 걸리니 중국 노선을 확장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사실”이라며 “한중 관계 냉기류가 항공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수요에 맞는 여행지를 찾아서 항공기를 배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오프닝 시기 폭발하는 여행 수요로 1분기 때 미처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월’ 개념으로 2분기 때 가는 수요가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성수기 때는 인기가 높은 노선에는 운항편수도 늘려서(증편) 가동률을 올렸다면 지금은 운휴했던 노선과 신규 노선을 취항하면서 계절적 수요에 맞는 여행지를 운항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천~마카오, 인천~기타쿠슈 노선 복항했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전용선 도입 ‘LNG 밸류체인 강화’ 한화큐셀, 美 태양광 모듈 시장 5년째 1위

에이치라인 해운과 장기용선 계약 10월 건조시작 2025년 상반기 인도 예정 20년간 북미산 셰일가스 40만톤 운송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확보로 LNG 사업 밸류체인 완성을 공고히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NG선을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전용선 전문 해운회사인 에이치라인 해운과 17만 4000㎥급 LNG 운반선에 대한 장기 용선계약(선박 대여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현대 삼호중공업이 10월 건조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인도할 예정이다. 대형 LNG선박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17만 4000㎥급 운반선에는 국민 전체가 약 반나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NG 전용선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자체 운영 가능한 LNG선을 활용하게 되면 가스를 생산,



에이치라인 해운의 운영선박.

저장, 발전하는 단계를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 가스사업 확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에 도입할 LNG 전용선을 우선 기존 트레이딩용 가스 조달에 활용돼 나갈 계획이다. 또 2026년부터 2046년까지 20년간 국내 수급과 트레이딩용으로 도입 예정인 북미산 셰일가스 40만톤 운송에도 활용할다. 여기에 더해 현재 외국계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LNG사업에 본격 진출하

기 위해 추가 LNG 전용선 확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LNG 전용선은 총 34척으로 대부분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LNG사 중에는 SK E&S가 전용선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전용선은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에 LNG 장기용선을 확보함에 따라 LNG 조달과 트레이딩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LNG 밸류체인의 완성과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LNG 전용선을 활용해 도입하게 될 북미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주택용 33.7%, 상업용 17.7% 1위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담당 한화큐셀이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5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한화큐셀은 2024년부터 북미 최초의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 가동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7%의 점유율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점유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한화큐셀은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화큐셀이 수년 연속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한 데에는 주력 제품군인 ‘큐피크 듀오’ 시리즈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큐피크 듀오는 대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Dalton) 공장.

형 웨이퍼를 사용해 출력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최대 출력이 605Wp(와트피크)에 달한다. 또 검정색으로 제작된 ‘큐피크 듀오 블랙’ 모듈도 심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용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삼성,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연구와 통합 솔루션 협력

삼성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개발 협력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RE100 이행 등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사업장 소비 에너지 중 20~40%를 열로 소비하는 상황,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섹터 커플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 시스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더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홍보 ‘눈길’

LG전자 새로운 얼굴이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LG전자는 10일부터 2달여간 국내 주요 거점 옥외 전광판에 브랜드 홍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최근 다채로운 표정과 색으로 개편한 브랜드 심벌 ‘미래의 얼굴’이 움직이는 ‘디지털 로고플레이’와 함께 자체 개발 폰트를 적용한 슬로건 ‘Life’s Good’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김재용 기자

코오롱인더, 아라미드 펄프 증설 220억 투자

생산 능력 2배, 3000t 늘어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

코오롱인더는 구미 공장에 약 220억원을 투자해 아라미드 펄프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오롱인더는 이번 증설을 통해 아라미드 펄프 생산 능력을 2배인 3000t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제품군 신규 공급과 보급형 제품군 강화로 제품 라인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라미드 펄프는 브레이크 패드와 클러치, 가스켓 등 차량 제품에 보강재

역할을 하는 소재다. 아라미드 원사를 부스러기 형태로 만들며, 강철보다 같은 무게 대비 5배 이상 강도에 내열성과 내마모성 특성까지 있다. 특히 아라미드 펄프를 사용하는 NAO계 브레이크 패드는 기존 강섬유 제품 대비 분진을 70% 줄여 친환경적이라 관심이 높다. 그 밖에도 우주항공 소재 등 복합소재 시장으로 용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코오롱인더는 2025년 시행을 앞둔 유로7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한 분진 저감 이슈와 전기차 정속성 강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1년치 혁신, 일주일 만에 성과”… SKT, AI 기술 고도화

내달 개편 ‘에이닷’ 진입장벽 최소화
메타버스 ‘이프랜드’ NFT화 지원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14.4% ↑
미디어·엔터프라이즈 등 성장세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공동으로 소셜 능력과 지식대화 능력을 갖춘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AI 서비스인 ‘에이닷’에 대해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선다.

SKT는 이와 함께 “글로벌 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며 국내 AI 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통신사는 물론 빅테크사와 제휴로 AI 생태계 확장은 물론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인혁 SK텔레콤 에이닷 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은 10일 오후에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고객 비헤이비어(행동)에 기반한 UX(환경·경험)로 개편하고 14세 이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할 것

이라며 “하반기에는 텔코 만의 에셋을 활용한 통화 내용 브리핑 등 텔코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담당은 “지난 2월 개최된 MWC에서 해외 테크들과 미팅을 갖고 각자의 서비스, 기술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얼라이언스를 제안했다”며 “이들 기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얼라이언스 구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빅테크 LLM과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들과 제휴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함께 역량을 모아 스케일이 있는 글로벌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에이닷 테크 담당은 “에이닷에서 자체 기술 고도화와 외부 파트너와 기술 협력 등 2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최근 생성형 언어모델은 1년치의 혁신이 1주일 만에 이뤄질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존 AI 모델을 1800만 학습 모델에

서 3900만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인간의 피드백과 강화학습을 활용해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고객 요청에 맞는 업무로 연결하고,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멀티 랭귀지 모델 구조에 적합한 통합 랭거를 연내 개발해 자연스럽게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하반기에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의 경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담당은 “아바타, 공간, 모션 등 3D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사고 팔고, 유료 입장권, 노래방 등 구매가 가능하고 인플루언스 후원 기능까지 마련된 이프랜드 경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꾸미기 아이템은 전용 콘텐츠 NFT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아이템을 NFT로 거래해 다른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 참여형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의 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한

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고객들이 개인의 혜택을 누리도록 요금제 선택권도 넓어졌다. 이를 통해 5G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고객 리텐션 제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요금제 출시는 임팩트가 있었지만 당장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SKT는 또 메타버스의 SNS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프홈’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맹석 담당은 “유저들이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공간을 갖고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의 이프홈에 놀러가고 하는 등 새로운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출시 초기이기는 하지만 공간을 꾸미는 재미, 친구 이프홈을 방문하는 재미 등이 있어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SKT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4948억원을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다. 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난 4조 37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 4조 3722억원, 영업이익 4948억원, 순이익 3025억원을 기록했다.

유무선 통신 사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415만 명으로 전체 고객의 60%를 상회한다.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 영역의 매출이 각각 10.2%, 5.8% 증가했다. 순이익은 투자회사 배당수익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SKT의 구독 서비스 ‘T우주’의 1분기 월간 실사용자 수는 180만 이상을 달성하며 국내 대표 구독 서비스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49개국에서 출시된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도 1분기 월간 실사용자 수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中 블록체인 특허 세계 1위… 韓, 4위 기록

엔트그룹 등 상위권에 6개社 포함
해외 사례 모니터링·연구 필요

블록체인이 차세대 정보기술과 빠르게 발전하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특히 중국기업이 올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CNIPA)이 발표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 수권 건수는 총 37,595건이다.

이 중 중국의 특허 건수는 22,457건으

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은 8,950(23.8%), 일본 1,339건(3.6%), 한국은 976건(2.6%) 순이다. 그 외 국가들의 특허 비율은 모두 1% 미만에 불과했다.

중국은 블록체인 특허권자 측면에서도 세계 상위 10위권에 6개 기업을 포함시켰다. 엔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평안테크놀로지, 차이나유니콤, 항저우푸자메이테크놀로지다. 특히 엔트그룹은 특허 건수 4,740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는 3,43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 있다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접목해 다양한 산업군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받아두면 전 세계 시장에서 기

술력에 대한 입지가 확고해 질 수 있다는 것.

블록체인 관련 한 전문가는 “중국은 이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가 됐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 한다. 한국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한 반면, 특허권자 순위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엔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IBM과 같은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온라인서 한정판 ‘뉴 XM 퍼스트 에디션’ 출시

BMW코리아는 10일 BMW 샵 온라인에서 ‘뉴 XM 퍼스트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초고성능 SAV 모델인 뉴 XM 출시를 기념해 만든 첫 한정판 모델이다. 차체에 케이프 오크 그린 메탈릭 컬러를 적용하고 대형 키드니 그릴의 테두리와 측면 윈도우 프레임에 나이트 골드 컬러로 마감,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23인치 대형 바이 컬러 휠에 검정색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장착했다. 실내는 M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과 알칸타라 소재 시트,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 익스클루시브 콘텐츠 및 알칸타라 루프 라이너를 기본 탑재했다.

/BMW코리아

포스코퓨처엠,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 발간

ESG 경영 공급망 체계 지속 밝혀

포스코퓨처엠이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했다.

10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책임광물보고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인권 및 노동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업의 원료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 책임 있게 진행한 개선 노력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다.

포스코그룹은 2020년 철강업계 최초로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 RMI에 가입한 이래 그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광물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1년 11월 국내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보

고서에서 분쟁 단체의 자금 유입,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없는 광물을 사용하며 ESG경영 관점의 공급망 체계를 지속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이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에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RMI 검증을 마친 공급사는 2021년 기준 5개에서 2022년 6개로 확대됐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광물 구매정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임광물보고서는 포스코퓨처엠 홈페이지의 ESG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한솔코에버, 제조업 DX 사업 추진

AI·빅데이터 기반 ESG 경영 확대
환경·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개발

KT가 한솔코에버와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전환(DX)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일 송파구 KT 송파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정보기술(IT) 솔루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산업단지의 DX(디지털전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조공정 업무 효율화및 환경·에너지 사업분야에서도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KT는 5G와 네트워크, 환경DX, AI, 클라우드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IT 기반시설과 기술력을 통해 타 분야의 선도 기업들과 제휴 협력을 추진하는 등 DX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솔코에버는 AI플랫폼과 에너지관리 솔루션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AI에 기반을 둔 DX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T Biz사업본부장 김재권 상무는 “한솔코에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DX에 앞장서겠다”며

솔코에버 업무



KT Biz사업본부장 김재권 상무(왼쪽)와 한솔코에버 반기동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다양한 산업별 우수 솔루션 기업과 ICT(정보통신기술)협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KYO
WON 교원

wells

좋았어 달랐어
믿고써
웰스써

웰스써프라이즈



이찬원

교원 웰스 공식 모델 이찬원

에코프로 형제 ‘과열’ 순매도에 상승하던 2차전지株 브레이크

한국거래소

이번주 에코프로·비엠 급하락세
개미들, 3거래일간 총 734억 팔아

“단기 과열… 펀더멘탈 요인 부족
투자의견 매수→중립 하향 조정”

코스닥 ‘대장주’ 중 하나인 에코프로 비엠을 두고 고평가 의견이 확산되면서 2차전지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높아진 만큼 성장성은 견고하나 ‘단기간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다.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던 ‘에코프로 형제주’의 주가도 최근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8.78%, 에코프로비엠은 5.2% 급락했다. 아울러 증시를 달궜던 2차전지주 약세와 함께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에코프로는 올해 10만3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11일 8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더불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이 높아졌으나 2차전지주에 대한 열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다만 에코프로 형제주인 에코프로비엠을 두고 ‘과열’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8일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랐으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펀더멘탈(실적·기업 가치평가 등) 요인이 부족했다”며 “위험-보상(Risk-Reward) 관점에서 단기간 투자 매력도가 하락해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정 밸류에이션 밴드를 넘어선 ‘단기적 과열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에코프로비엠의 현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59배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의 43배를 훌쩍 넘겼다.

전 연구원은 “주가이익증가비율(PEG) 또한 과거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해 적정 매수구간을 벗어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17만 원에

서 27만 원으로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달 4일부터 에코프로비엠을 순매도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을 575억4782만원 순매도했으며, 에코프로 역시 9일 159억1041만 원 가량의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도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물량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지난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1·2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다. 외국인들은 5월 들어 에코프로를 1894억2829만 원, 에코프로비엠을 538억9837만 원 어치 순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현장 굴착기에 부착된 측후방 카메라(왼쪽) 및 디스플레이 내 인체 인식 장면.

/DL건설

DL건설, 굴착기 AI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현장 의무적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DL건설이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DL건설은 10일 “전 현장 내 굴착기 및 지게차에 해당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중장비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영상 인식 시스템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카메라를 부착, 해당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을 AI가 직접 판단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DL건설은 “장비 협착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현장에서 초음파를 활용한 장비가 활용되고 있었다. 기존 초음파 방식은 사람과 사물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 작업 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알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 현장에 적용되는 AI 영상 인식 시스템은 전후방 및 측후방 카메라를 부착해 중장비 사용 시 사각지대 없이 시야를 확보할 뿐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건설, 태안에 모빌리티 경험도시 건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현대건설이 충남 태안군에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민관협력체제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태안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고품격·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거점지역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형’ 분야에서 최종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현대도시개발,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등 분야별 최고의 스마트 솔루션 보유 기업과 함께 태안군 원도심과 기업도시를 아우르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시설 ‘태안군 UV랜드’, 다채로운 드라이빙 체험이 가능한 현대자동차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 등 태안군에 위치한 모빌리티 경험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내 잠재해있던 관광 자원을 본격 가동한다. ICT 기반의 네트워크를 원도심으로 확장해 안정적인 정주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깜짝실적’ 키움증권, SG사태에 주가 부진

1분기 영업익 3889억, 82% ↑
당기순익 107% 오른 2924억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연루
주가 0.22% 하락 9만1000원 마감

올 1분기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열풍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키움증권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다만 SG 주가 폭락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실적 호조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9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8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3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7.45%, 107.27% 급증한 3조767억원, 29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 및 우호적인 금리 환경에 따른 운용손익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주가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9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키움증권은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되며 지난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들이 키움증권의 주식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지난 달 2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173억원,



/키움증권

241억원 매수에 나서고 있었으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리테일 채널에의 높은 약점 점유율로 인해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차액결제거래(CFD) 익스포저(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우려와 감독당국의 CFD 관련 검사, 현재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지연 가능성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가는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통으로 CFD 미수채권 발생이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CFD발 손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서고 있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과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고 양호한 실적으로

향후 키움증권이 충당금 적립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CFD 우려로 키움증권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CFD 신규가입 중단 및 향후 금융위의 CFD 제도개선 등으로 향후 CFD 관련 손익이 위축될 공산이 커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크게 부진할 것”이라며 “CFD 사태와 최근의 거래대금 감소를 근거로 업종 상승 모멘텀이 부제한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CFD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주가는 악재를 기반영했고 현 이슈가 수조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고 보유에서 오는 우려보다는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기 2000억원대 수준 체력은 향후 미수채권 충당금 적립 및 손실 등도 감내할 수 있다”며 “일부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상황 가정해도 타 브로커리지 수익 규모가 더 크기에 업사이드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주가 순자산비율(PBR) 0.5배 수준의 현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 저평가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PER 역시 3.5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투협,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기준금리 동결, 해외물가 상승 영향

지난 4월 국내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해외물가 상승에도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및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의 ‘2023년 4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93%로 전월에 비해 2.3bp(1bp=0.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1.8bp, 2.0bp 오른 연 3.292%, 3.360%로 집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

상치를 넘어서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실업급여 청구건수 증가 및 제조업지수 하락 등 미 경기 둔화 신호에 따라 상승분을 되돌리며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통안증권과 금융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은 국채와 특수채, 통안증권, 회사채 등의 순발행이 18조8000억원 늘면서 266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든 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원관희 기자

韓전경련-日경단련 ‘미래 산업협력 강화 공동사업’ 구체화

日 도쿄 경단련회관 기자간담회
미래파트너십 기금 진행상황 발표
양 단체 회장, 공동운영위원장 맡아
특정 기업 배제는 일절 없을 것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재단 설립
까지 한걸음 더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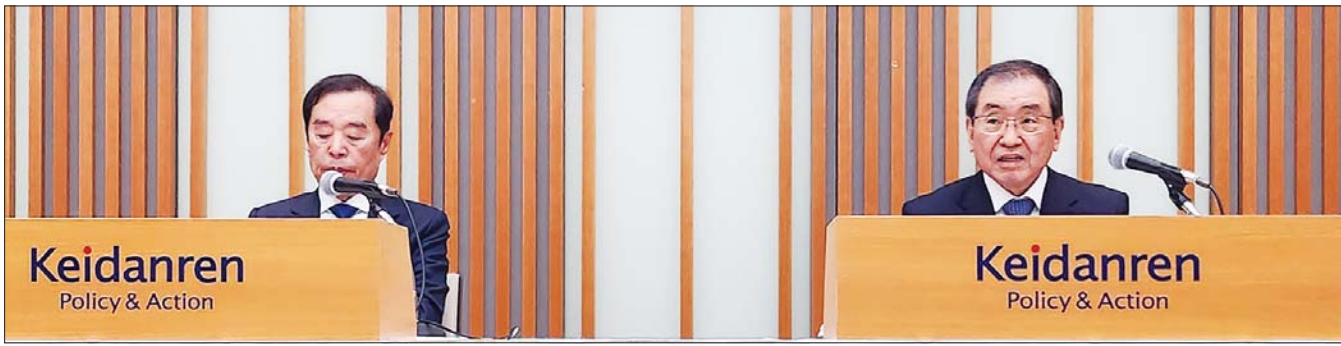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파
트너십 재단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다고 밝혔다.

미래파트너십 기금은 지난 3월 처음
창설했다. 일제 강제 징용 배상을 위해
양국 경제단체가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해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계획을 담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양 단
체가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양 단체 회
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
다.

운영위원회는 기금 공동 사업 실시
방침과 사업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조직했다. 국내에서는 김윤 삼양
홀딩스 회장 및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
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일본 측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토 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제단체연합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과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을
선임했다. 일본 측 자문위원회 위원
장으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
치경제학술원 교수를 선임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양
단체는 양국관계의 건전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
한 길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 등에 조언을 얻기 위한 자문
위원회도 함께 구성했다. 일본에서는 후
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
술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국내에서는 강
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임명됐다.

경단련은 공동사업을 통해 양국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대학간 연계
와 한국 고등학교 교원 일본 초빙, 인턴

십 등 젊은 인재간 교류를 예로 들었다.
경제안전보장 환경 정비와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등과 관련한 연구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반도체와 자원
등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오는 7월 6일 서울에서
한일 산업협력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 교류 관련 공동 사업의 예
시로는 양국 대학 간의 교류 강화, 한국
고등학교 교원의 일본 초빙, 인턴십 등
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산업협력 강화 관련 공동사업은 5가
지로 정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우선 반도체 공급망 강화,
자원·에너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경제
안전보장 환경 정비에 나선다.

또 ▲자유통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
지·강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실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규제완화, 스
타트업 협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
진흥, 제3국 시장 협력) ▲전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과제 대응 등을 꼽았다.

도쿠라 회장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
해 한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일본은 소부장
분야 시장점유율이 높다”며 “일본의 장
점인 소부장과 한국의 설계·양산이 있어
야 반도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분야
에서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희귀자원 문제를 언급했
다. 그는 “한일 모두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데 2차 전지 등에서 희귀자원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
다”며 “희귀자원의 국유화 움직임에 공
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운영위원

중견기업계, “글로벌 위기… 규제완화·금융지원 필요”

중견기업 경제 현안 간담회
금융·수출지원 등 정책 노력 강조
정보 공유·상황 변화에 빠른 대응도

중견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환율·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탄소중
립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
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정책 지
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자
동차, 기계 등 업종별 중견기업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경제 현
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
장과 SIMPAC, 유라코퍼레이션, 이랜
텍, 고려제지, 고영테크놀러지, 능원금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마포 연합회 사무실에서 중견기업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3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속공업, 티맥스소프트, 코다코, 티에스
이 등 업종별 주요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포스트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 시대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의 저변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수출 지원
등 위기에 걸맞은 전향적 정책 노력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 대내

외 경제 상황도 낙관치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자금 경색, 규제 강화, 전기
료 인상, 인력난 등 국내에서 겪는 고충
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 변
화에 따른 애로를 꼽았다.

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시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상황 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
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견인하려면 업종별 특성을 세밀
하게 반영한 규제 완화와 투자 세액 공
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진, 韓 패션기업 글로벌 도약 돕는다

2024년 1월까지 서비스·정보 제공
마이페어와 해외 박람회 참가 서비스

한진이 해외 박람회 부스 예약 플랫폼
마이페어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10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
우수한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SWOOP(쑤프)’을 런
칭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기업에
게 물류 및 마케팅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24년 1월까지 해외 박람회 참여
를 희망하는 국내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한진은 마이페어의 고객사를 대상으
로 패션 및 전시에 특화된 국제물류 서
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글로벌 셀러 대
상으로 운영 중인 해외배송 서비스 ‘글
로벌 원클릭’을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
한다. 또한, ‘SWOOP(쑤프)’ 홈페이지 회
원을 대상으로 마이페어의 서비스를 홍
보한다.

/김승호 기자

中企, 5년간 ‘스타트업 1000곳’ 육성

2조원 규모 사업화·R&D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5년간 초격
차 스타트업 1000곳을 선정해 전폭적으
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팀스타운 팀스홀
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격차 스타트
업 대표, 전문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
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
년을 맞아 중기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
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

벤처 집중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출정식에 참여한 초격차 스타
트업은 비전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은 글
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
트’는 신청 기업에 대해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가 평
가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
격차 팀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
한다.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매직

23l 올인원 광파 오븐 다기능 멀티 2종 출시

SK매직이 오븐 하나로 에어프라이,
전자레인지, 그릴, 토스트 기능까지 이
용 가능한 다기능 멀티 오븐 ‘23l 올인
원 광파 오븐’ 2종을 출시했다.

10일 SK매직에 따르면 23l 올인원
광파 오븐은 좁은 주방 공간을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in-1, 다기
능 멀티 오븐이다. 크기는 가정용 전자
레인지 수준이지만 23l의 조리 공간을
제공한다. 에어프라이, 광파오븐, 광파
그릴 등 총 45종의 자동요리를 지원해
각 메뉴별 맞춤 버튼을 설정하기만 하
면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 경쟁력 강화 대규모 채용·투자 나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인천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채용과
투자에 나선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7일 인하대학교 2호관에서 인하대와
함께하는 ‘IN x IN DAY’를 진행한다
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HD현대
인프라코어 본사가 위치한 인천 소재 대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유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중대
형 엔진 생산공장을 2024년까지 총 400
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자식 엔진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한다.

/양성운 기자 ysw@

한전, 나주시 ‘에너지밸리 MG’ 구축… 삼성·LG 동참

신재생에너지원·ESS 활용
개방형 플랫폼으로 주도권 확보
스마트싱스·쌍규, DR 시범 사업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와 신기술로 무장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동참한다.

한국전력은 9일 나주 본사에서 ‘에너지밸리 MG(마이크로 그리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 밸리 MG는 나주시에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전과 기관 및 기업이 모여 ‘에너지밸리 MG 사업’을 위해 친환경 전원 개발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규제 프리존 구축 등에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친환경 전원(태양광, 풍력, 수소, 소형 원자력



(왼쪽부터)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규 42dot 그룹장, 장권영 시너지 대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이철환 빈센 대표, 한미숙 헤리트 대표, 강주엽 기아 상무, 박태홍 LG전자 사장. /한국전력

등) 개발 ▲전력데이터(AMI, 계통정보 등)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를 활용한 규제프리존 구축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력·SRF·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와 영산강 친환경 선박 도입, 탄소배출권 P2P거래, 커뮤니티 솔라, 분산자원·수요자원 통합관리 사업 등 에너지밸리 MG내에서 신기술 검증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

하는 에너지밸리 MG 사업의 의의도 다시 살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 MG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MG 사업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협력과 융합에 기반한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DR(주민주요 반응) 시

범 사업에 참여하며 MG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DR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아파트 약 2000세대를 대상으로 DR 서비스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파트너로 낙점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활용한 절약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전을 연결하면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플랫폼으로, 에너지 절약 미션 시간에 스스로 AI 절약 모드를 작동하거나 조명 혹은 스마트 플러그 사용 전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박찬우 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시 주민 DR 사업에 이어 나주시로 사업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쌍규 앱으로 동참한다. 쌍규 역시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가전제품을 연동하면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에너지를 아껴준다. 또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해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정기현 부사장은 “LG전자는 LG 쌍규 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차별화 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정황근, 동남아서 ‘K-푸드 영업사원’ 활동

〈농식품부 장관〉

말레이서 최초 농업장관 공동선언
인니에 스마트팜 등韓 진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과의 미래지향적 농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모하마드 사부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최초의 농업장관 공동선언을 하고 식량안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할랄식품 교류 등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또 할랄 한우 제

1호 수출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KMT)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케이-푸드(K-Food) 수출 영업사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물야신 립포 농업장관을 만나 양국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등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팜유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농식품 기업들과 현지 진출 법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정책 지원 수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의 중추국가이며, 특히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이자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정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목재, 팜유 등 중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고,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우, 과일, 김치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와 농업협력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케이-푸드(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산물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협중앙회, 농가 냉해 피해복구 전력

작물 촉진 영양제 20만개 무상 공급
지역농협, 무이자 1000억 규모 지원

농협중앙회가 최근 냉해 피해농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작물 생육 촉진 영양제 20만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4월 8일부터 9일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전국 과수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냉해 피해는

총 9628ha로 이 가운데 95%가 과수류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냉해로 경북, 전남, 전북, 경기, 충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냉해피해가 커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전북 장수와 충북 보은 농가를 찾아 냉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 청취 등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해운協-4개 선사, KP&I 가입 확대 맞손

〈한국선주상보험조합〉

포스코플로우 등 상생협력 체결
韓 가입 선박 14척… 불과 11%

한국해운협회는 포스코플로우, 한국선주상보험조합 및 포스코 CVC 운송선사 4개사 대표이사와 9일 포스코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국내기업 CVC선 115척중 한국선주상보험조합(KP&I)가입 선박은 14척으로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포스코 CVC선대의 KP&I 가입 확대를 통해 KP&I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협약서에는 ▲해상운송 경쟁력 강화



(왼쪽부터) 박영안 KP&I 회장, 안중호 팬오션 사장, 김만태 대한해운 사장,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노용래 폴라리스워핑 부사장. /한국해운협회

를 위한 협의체 구성 ▲포스코그룹 수출입 해상수송물량의 국적선 수출 확대 ▲최상의 해상수송 및 보험서비스 제공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및 선주상보험조합법 준수 및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합리적인 입찰 계약 및 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사항이 담겼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상운송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운업계와 포스코플로우, 한국선주상보험조합의 상생협약에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이번 협약이 해상운송 전반에서 국적 해운선사와 포스코그룹, 한국선주상보험조합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농진청 ‘치유농장’서 팜스테이 즐겨요

농업 활동 자체 소비에 초점

“한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죠?”

농촌진흥청 박진우 농업연구관은 ‘치유농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드림돌 힐링팜’. 농진청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치유농장’으로 생태·숲 체험과 팜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농장은 9900㎡(약 3000평) 규모로 원등산 자락에 위치해 이름모를 들꽃이 여겨저기 피어있다. 누군가 계란후라이꽃이라며 ‘샤스타데이지’를 가리킨다.

농업이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 자체를 소비하는데 초점을 둔다.

박 연구관은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다. 치유농업을 확산하는 거점기관도 구축되고 있고, 관련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도 253명 배출됐다. 농진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8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창업아카데미

무료 교육프로그램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일정

A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 성공적인 창업 배출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직접 강의 (CEO 35년 경력)

교육약력

1996년 ~ 現 : 대한홍삼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방송 브레인TV 대표이사
2005년 ~ 現 : 햇터라이프 대표이사
2009년 ~ 現 : 한삼장홍삼 대표이사

교육주관



2003. 9. 12 설립

햇터그룹지주회사

자금/투자 관리
법무 및 행정 관리
세무회계 관리



2003. 10. 1 설립

30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기획 및 송출
광고주 관리



1996. 9. 3 설립

국내 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상품 개발 및 제조
브랜드 홍보 / 관리
대리점 관리



2009. 10. 1 설립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온라인 전문 유통
오프라인 전문 유통
해외수출 전문 유통



2005. 5. 20 설립

업계최초 계층형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서비스
물류/상품 서비스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번출구 또는 7호선 6번출구 ➡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차장 황 선 영** 010-4480-004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경남도,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식

맞춤형 취업상담·사후관리
‘취업정착금 플러스 사업’도

경상남도는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10일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경남도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박종우 거제시장, 삼성중공업 신현호 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이영호 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소식 이후에는 현장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가 공모에 선정되어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문을 열게 되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경남지역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조선업 맞춤형 1:1 취업상담부터 사



10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열린 ‘경남조선업도약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개소 기념테이프를 자르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후관리까지 조선업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조선업무 직무연계를 위한 전문상담사의 1:1 조선업 매칭 고용서비스(취업상담 창구 운영) ▲조선업 인식개선·취업특강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 ▲조선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조선업 맞춤 특화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의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 후 조선업종에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

급하는 ‘취업정착금’ 및 2022년 취업정착금 수혜자 중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취업정착금 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과 더불어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국비 78억 원 등 총 98억 원 사업비로 ▲ 정부-지자체-근로자 3자 적립으로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 만 35세~49

세까지 최저임금의 120%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 원청 기술훈련원 훈련생 대상,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원 ▲ 만 50세 이상이고 경력 10년 이상의 조선업 생산직 정년퇴직자 및 경력자 채용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숙련 퇴직자 재취업지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전남도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최다 국비 143억 확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에 전국 25개 섬 중 최다인 16개 섬이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 16개 섬엔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분야별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우선 지원해 소외된 작은 섬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행정통합 제2차 토론회’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회는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의 선결 요건과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에는 배준구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욱 신라대학교 교수, 박재을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송효진 성결대학교 교수, 안소동 보좌관(이달곤 국회의원 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4월 27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논의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자 15일 부산시청에서 제2차 토론회, 오는 24일 진주시식산업센터에서 제3차 토론회를 연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역량 결집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창구 역할 경북도 중심 항공물류시설 핵심

경상북도가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결집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공동위원장은 문종도 경상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사진.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

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대구시, 제2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국토부, LH공사와 공동으로 확정

대구광역시 100만 평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한다.

올해 3월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면적 329만㎡)이 선정된 이후 대구광역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히 수행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내 다수의 산단개발 경험으로 숙련도가 우수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분담이 가능한 LH

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동 사업시행 방식을 선정해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 5월 4일 국토부에서 열린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특히, LH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현재도 대구제1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 / 조성면적 856만㎡ / 사업기간 2009~2024년)와 대구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동구 울하동 일원 / 조성면적 17만㎡ / 사업기간 2017~2023년) 공동 개발 중임에 따라 축적된 협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제2국가산단의 입지적 우수성과 이에 따른 기업수요를 바

탕으로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국가산단은 교통, 인프라, 도심과의 접근성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산업단지 입지를 자랑하고 최근 지역 내 미래차, 배터리 등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유치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임에 따라 수요기업 확보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재부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5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해 2030년 산업단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김삼복 기자 ksb8100@

지역 이모저모

울주군

‘영남알프스 별빛투어’ 개최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별 관측 체험행사 ‘2023 영남알프스 별빛투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분야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영남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병풍 삼아 낮에는 태양관측 전문장비로 태양의 흐름을 관찰하고, 별자리 이야기를 들으며 ‘LED 별자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 가족과 함께 ‘LED 에어로켓’을 만들어 직접 날리면서 로켓의 작동원리와 과학상식을 배울 수 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전시

미환급 지방세 찾아가세요

대전 시민들은 5월 한 달간 찾지 않았던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된 지방세는 총 1만5876건, 7억8305만원에 달한다.

대전시는 이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5개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로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급을 안내 중이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산청군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추진

산청군이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 등 ‘모두가 살고 싶은 산청’ 만들기에 재걸음을 걷고 있다.

10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청군이 체결한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촌협약사업은 산청군이 수립한 남부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식품부가 패키지로 국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기간은 5년(2022~2026년)으로 사업비 221억원이 투입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강진군이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2023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마을 경관 훼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군 정주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지만, 올해에는 지원금을 늘리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해 추진한다.

빈집을 수리해 장기 임대하는 경우,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해 차등 지원한다.

/강진(전남)=양수녕 기자

야구장 반입... 日 수입 부활... 올 여름 ‘캔맥주’ 대격전

1분기 일본맥주 수입액 148% ↑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 인기
롯데아사히주류, 7월 정식출시

8년만에 야구장 캔음료 허용
편의점 업계, 맥주 할인행사 기획
대한제분 ‘곰표맥주’ 시즌2 선배

올 여름은 맥주 시장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매운동으로 위기를 맞았던 일본 맥주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야구장에 캔맥주 반입이 허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2만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8.4% 늘어났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기 직전인 2019년 2분기(1901만 달러) 이후 최대치다. 일본 불매 운동이 일고 같은 해 4분기에는 39만달러까지 수입액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올해 600만달러 선을 넘은 것이다.

최근에는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인기 상품으로 올라섰다. 정식 출시에 앞서



선출시한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돼 맥주를 정지하기도 했다.

편의점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의 경우 5월 들어 1~3일 수입맥주 기준 매출액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이 짧긴 하지만 신제품이 이렇게 기존 상품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10일 설명했다.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은 집에서 생맥주를 머그잔에 따라 마시는 느낌이 들게끔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일명 ‘거품 나는 맥주 캔’으로 일본에서 먼저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는 ‘일본 여행가면 꼭 마셔야할

맥주’로 꼽히면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5월부터 국내에 아사히 생맥주캔을 한정 수량 출시했다. 큰 인기가 점쳐지는 제품이라 국내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최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사히 생맥주캔은 올해 7월 정식 출시된다.

야외 나들이객이 늘고, 야구장 내에 캔맥주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편의점 맥주 판매 경쟁도 치열해졌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왼쪽)편의점 CU에서 모델이 수제맥주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위)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뉴스1

하면서 8년 만에 야구장 내 캔음료 반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장 내에는 캔음료 반입이 금지되어 왔으며, 구장 내 편의점에서도 음료를 구매하면 내용물만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맥주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일회용컵 사용량이 폭증한다는 지적이 일자 캔맥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장 밖에서 캔 음료를 사서 입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발 빠르게 맥주 할인 행사를 기획해 실시하고 있다.

가격 할인 행사 외에, 세븐브로이와 제주맥주의 판매 대결도 업계의 관심사다. 편의점 수제맥주 상표권 문제를 겪

은 대한제분은 올해부터 제주맥주와 손잡고 ‘곰표맥주’ 시즌2를 선보인다.

기존에 대한제분과 함께 했던 세븐브로이는 ‘대표 밀맥주’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패키지를 변경했지만, 맛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또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대표 밀맥주’ 무료 팝업 스토어를 열고 소비자 확보에 나선다.

주류업계 양대 산맥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도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는 오비맥주의 ‘카스’다. 오비맥주는 지난 2021년에 출시한 ‘한맥’을 새롭게 리뉴얼하며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새로운 라거 맥주 ‘캘리’와 기존 ‘테라’를 앞세워 ‘카스’를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칠성음료도 올 하반기 ‘클라우드’를 리뉴얼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인데다 야구장 내 맥주 반입이 허용되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유통 채널과 주류 회사 모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비자들과의 접점 확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월간과자 구독하고 어학 등 강의 들어요”

롯데웰푸드, 이색 컬래버 진행
월간밥상·여행이지, 부루마블 증정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대표 구독 서비스인 ‘월간과자’와 ‘월간밥상’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이색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과업계 최초로 선보인 구독경제 콘텐츠인 월간과자는 매 월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스낵, 비스킷, 초코 등 다양한 과자를 푸짐한 구성으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월간과자 5월호는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 구독 플랫폼 ‘클래스101’과 손잡고 컬래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존 과자 구독 서비스에 다른 분야의 구독 서비스를 결합시켜 소비자에게 특별한 구독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월 1만9800원의 ‘월간과자 마니아 팩’을 신규로 구독하는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취미, 어학, 수의 창출, 커리어, 키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클래스101 구독권(1개월)’을 제공한다. 월간과자 5월호 구독 후기 이벤트를 통해 기존 구독자에게도 ‘클래스101 구독권(1개월)’을 증정한다. ‘월간과자×클래스101’ 프로모션은 롯데웰푸드 공식 온라인몰 ‘스위트몰’에서 이달 2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롯데웰푸드 월간밥상은 매 끼 어떤 식사를 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가정간편식(HMR) 큐레이션 서비스다. ‘Chefood(쉐푸드)’ 브랜드 제품 등을 포함해 계절과 주제에 맞게 구성된 푸짐한 간편식 꾸러미가 제공된다. 월간밥상 5월호는 여행을 떠나

기 좋은 계절을 맞아 교원투어가 론칭한 여행 전문 브랜드 ‘여행이지’와 컬래버를 진행했다. 오는 15일까지 월간밥상 5월호를 구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이지 부루마블’ 보드게임을 증정한다.

월간밥상 구독은 롯데웰푸드 공식 온라인몰 ‘푸드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D2C 전략을 확대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과자 구독 ‘월간과자’를 시작으로, HMR 구독 ‘월간밥상’, 빵 구독 ‘월간생빵’을 선보였다. 롯데웰푸드 구독 서비스는 현대카드 2층 구독, SKT T우주, NH농협카드 농카구독 등 외부 구독 플랫폼과 결합해 판매채널을 확대하며 꾸준히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호주의 한 울워스(Woolworths) 매장에서 소비자가 비비고 만두를 구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호주서 비비고만두 판매 개시

5년내 식품사업 매출 3000억 목표

CJ제일제당이 호주 현지 메인스트림 시장에 본격 진입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2027년까지 호주 식품사업 매출을 연 3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호주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울워스(Woolworths)’의 1000여개 모든 매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만두 제품은 야채, 김치, 새우 세 가지 종류로, 우선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C2C(Country to country) 방식으로 호주로 수출한다. 이후 올해 3분기에는 현지 생산 시설을 확보해 돼지고기, 치킨, 코리안 바베큐 등 고기를 주재료로 한 만두를 출시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만두 정식 판매를 계기로 인지도를 확보한 후 P-Rice, 김치, K-소스 등 글로벌 전략제품의 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비자가 K-푸드를 경험하

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일반적인 유통채널 외에 현지 레스토랑이나 레디틸 업체 등과 협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 쌀 소비가 많다는 점에서 상품밥 경쟁력을 활용한 레디틸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또한 전체 아시안 푸드를 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동남아시아 롤/담섬 등의 ‘포장음식(Wrapped Food)’ 카테고리에 진출하는 한편, 약 2조원 규모의 호주 기능성 음료 시장을 겨냥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미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호주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아시안 마켓 중심으로 신규 유통채널을 개척하며 4년(2019~2022년)동안 연평균 26%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인구 중 17%가 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해 있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아 ‘K-푸드 신영토 확장’의 주요 국가로 꼽혔다. 신선식품은 내수 비중이 높지만 냉동식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1분기 매출 1조5634억... 11.5% ↓

영업이익은 6.8% 줄어든 1524억
백화점 매출 6209억, 6.1% 늘어

신세계가 본격화한 엔데믹(풍토병화)과 장기화한 불황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방한 여행객의 영향으로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동시에 팬데믹 기간 중 큰 수혜를 입은 인테리어·라이브커머스 매출이 다소 줄었다.

신세계는 10일 한국거래소에 연결 기

준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1.5% 줄어든 1조563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6.8% 줄어든 1524억원이었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의 외형 성장과 디에프 등 연결회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끊임없는 공간 혁신과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부문 매출액은 620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6.1%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9.2% 준 1103억원이었다. 신세계 측은 영업이익의 감소를 지난해 최대 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과 물가상승으로 연동된 관리비 등의 증가로 지목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하반기 전국 매출 1위이자 주력 점포인 강남점의 영패션전문관을 새단장하고 SSG닷컴 내 신세계 백화점몰 서비스를 확대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연결회사들은 올해부터 본격화한 해외여행으로 방한한 여행객들에 힘입어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정관장’ 홍삼의 힘… KGC인삼공사 ‘통합우승’ 쾌거

소속 선수들에 홍삼 제품 제공
국가대표들도 먹는 안전 식품

우승 기념 공식 온라인몰서
기획전·할인·이벤트 진행

KGC인삼공사가정규리그우승에 이어 통합우승까지 거머쥐며 ‘정관장’ 홍삼의 힘을 입증했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는 올 시즌 정규리그를 우승한데 이어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통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월 EASL(동아시아 슈퍼리그) 챔피언스 워크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KGC인삼공사는 올 시즌에만 트로피를 3개나 거머쥐었다.

KGC인삼공사 선수들은 통합우승원동력의 한 축으로 정관장 홍삼의 힘을 꼽았다.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억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통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KGC인삼공사

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항산화 작용 등의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홍삼은 인삼을 수증기로 찌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포닌, 홍삼다당체, 아미노당, 미네랄 등이 조화를 이뤄 피로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생성 호르몬을 촉진해 운동선수들과 같이 체력소모가 많은 이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 주는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건강관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간편하게 휴대와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소속 선수들에게 1년 12달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홍삼정’부터 ‘에브리타임’, ‘달임액’ 등 다양한 제품을 시

기에 맞게 공급한다. 선수들의 체력관리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회사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인 만큼 회사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라는 취지다.

홍삼 효과를 본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정관장 홍보 전도사를 자처했다. 주변 지인은 물론 외국인 선수와 타 구단 선수들에게 홍삼의 효과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홍삼을 접한 이들이 늘며 타 구단 및 기업에서도 대량 주문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제공돼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GC인삼공사 이종림 스포츠담당장은 “매일 꾸준히 섭취한 정관장 홍삼이 통합우승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장 홍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 정물에서는 KGC인삼공사 프로농구 통합우승을 기념해 ‘인삼즈가 선물을 드립니다!’ 기획전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활기력 부스터’, ‘썬생’ 등 정관장 인기 제품부터 콤비타, 아하핏 등 입점 제품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신약, 美소화기학회서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 ‘램시마SC’ 임상 결과 공개
대웅제약, ‘펙수클루’ 연구 데이터 발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학회에서 자체 개발 신약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셀트리온은 6~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및 온라인에서 진행된 ‘2023년 미국소화기학회(DDW)’에 참가해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2건을 각각 구두 발표 및 포스터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해 램시마S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이번 학회에서 구두 발표 세션과 포스터 세션을 통해 각각 공개한 연구는 크론병 환자 343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 4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다. 우선 셀트리온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6주차까지 램시마 정맥주사(IV) 제형을 투약했다. 이들 중 램시마 IV 유도요법에 임상반응을 보인 환자를 10주차에 2대1 비율로 램시마SC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위약 대비 램시마SC의 유효성 측면



셀트리온이 이달 6~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소화기학회서 ‘램시마SC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적 우위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램시마SC로 유지 치료를 받은 후 54주 시점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치료 유효성 결과가 도출돼 램시마SC의 우월성이 입증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셀트리온이 램시마SC의 미국 신약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한 임상 데이터다.

대웅제약 역시 이번 학회에서 ‘펙수클루’ 부스를 마련하고,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GERD) 환자 대상 효능을 입증한 임상데이터를 발표했다.

성인경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주도의 임상시험은 GERD 환자에서 1일 1회 펙수클루의 식전 투여 대비 식후 투여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

다. 펙수클루 투여 후 2주 및 4주 시점까지 점막 결손이 완전히 치유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식전 투여군과 식후 투여군 간의 치료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약물이상반응 발생률 역시 투여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3상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은 유효성 평가 지표인 8주까지의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상 확인된 점막 결손 치료율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펙수클루 투여군은 97.3%, 에소메프라졸(40mg) 투여군은 97.9% 치료율을 확인해, 대조약과 치료 효과의 차이가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투썸플레이스, ‘제로슈가 커피믹스’ 출시

30·100개입 두 가지 용량

프리미엄 디저트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제로슈가 프리미엄 골드 커피믹스를 선보인다.

투썸플레이스가 이번엔 선보이는 투썸 제로슈가 프리미엄 골드 커피믹스는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발맞춰 투썸의 커피 전문 노하우로 선별된 투썸만의 프리미엄 원두 블렌딩에 ‘당’이 없는 재료를 엄선하여 만든 제로슈가 커피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등을

사용해 믹스커피의 단맛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당 섭취를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비아는 당과 콜레스테롤이 ‘제로’인 동시에 설탕 이상의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로 낮은 칼로리, 혈당 조절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썸 제로슈가 프리미엄 골드 커피믹스는 30개입과 100개입의 내용량 두 가지로 출시되며, 온라인과 할인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멜라이트 선 에센스’로 피부톤 관리

‘3중 기능성’ 인증받은 자외선 차단제

한미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외선 차단과 미백, 주름개선의 ‘3중 기능성’을 인증받은 자외선 차단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한미약품 화장품 브랜드 ‘프로-캠’ 시리즈로 출시된 이 제품 브랜드명은 ‘멜라이트 선 에센스’로,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화사한 피부톤 관리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다.

특히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복합성분 MELA-CLEAR Complex(알파-알부틴, 하이드록시 스테아릭에씨드, 글루타티온)를 비롯, 한미약품이 특허 받은 유산균 배양액 3종(비피다발효여과물, 락토바실러스발효물, 락토바실러스발효해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보습과 진정 등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질환 ‘명의’ 영입

‘유퀴즈’에도 출연한 송석원 교수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했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사진)가 이대서울병원으로 영입됐다.

이대서울병원은 송 교수가 6월 중순부터 이대서울병원에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송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대동맥질환 분야 명의 중 한 명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지난해 대동맥수술 620례를 달성, 국내 의료기관 기준 연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수술을 요하는 국내 대동맥 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에서 수술한 셈이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대동



맥혈관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송 교수 영입을 통해 대동맥질환 특화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입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송 교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송 교수와 함께 대동맥혈관팀을 이루었던 심장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교수진 및 체외순환사, 전문간호사를 함께 영입해 눈길을 끈다.

/이세경 기자

스테로이드 없는 구내염 치료제 ‘스토케어’

제일헬스사이언스, 창상피복재 출시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입안 상처 케어용 창상피복재인 ‘스토케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토케어는 구내염 통증 완화를 돕는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생체점착성을 가진 폴리비닐피롤리돈(PVP) 성분이 구강 내 보호막을 형성하고, 포타슘 소르바이트 성분이 적용 부위에 살균보

존 역할을 한다.

제품 내 개별 스틱이 동봉되어 있어, 창상 부위에 정확한 도포 및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스토케어는 전 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스테로이드, 항생제, 마취제가 들어있지 않아 영유아의 유행성 구내염 및 보철물 사용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구강 내 상처 발생에도 사용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Louis Wain

고양이를 그린 화가
루이스 웨인展

23.6.13 — 8.31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1-3층

주최 주관

강동문화재단
Gangd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홍보마케팅

(주)사야컴퍼니

예매문의

02-440-0500

루이스 웨인전

검색



신한은행,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팔 걷어

신한은행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 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형 은행장(왼쪽 세번째)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왼쪽 두번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왼쪽 첫번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한국거래소, '1사1촌 결연마을' 일손돕기 봉사

한국거래소는 10일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1사1촌 농촌결연마을인 강원 홍천군 후동마을을 방문해 옥수수 모종 심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신영재 홍천군수(앞줄 왼쪽 첫번째),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Sh수협은행, '찾아가는 1사1교 금융교육' 실시

Sh수협은행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위해 충청남도를 방문했다. Sh수협은행은 충남 서천군 서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도서·어촌지역 14개 초·중·고교에서 '찾아가는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을 전달한다. /Sh수협은행



오비맥주, 경기지역 안전문화 의식 확산 '앞장'

오비맥주는 지난 9일 이천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김영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왼쪽)이 이철우 오비맥주 이천공장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금투협,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기부·봉사활동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금투협 사내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간식으로 준비한 떡을 전달했다.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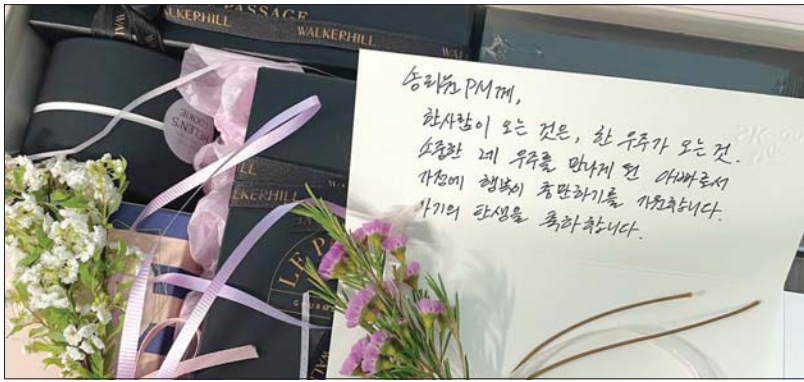
SK온 구성원, 네 쌍둥이 얻어... “회사 복지 큰 도움”

이직 계기로 아이 갖기로 결심
구성원 행복추구 사내문화 큰 힘
“회사와 함께 낳고 기른 아이들”

SK온 구성원이 초산으로는 국내 최초로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를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

SK온의 송리원PM(39)의 아내 차지혜(37) 씨는 올해 3월 16일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10일은 병원에서 받은 분만 예정일로 네 쌍둥이에게는 오늘이 또 다른 생일이다. 0.9kg으로 가장 작게 태어난 첫째가 건강하게 퇴원하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됐다.

송PM은 2020년 결혼 후 아내와 임신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 회사에서 밤낮없이 일하느라 임무를 못냈다. 부부가 다시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것은 송PM의 SK온 이직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6월 SK온 이직이 확정되자 아내가 먼저 “SK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회사라고 들었다”며 바로 난임 병원을 찾았다. 송PM은 지난해 9월 SK온에 입사한지 이틀 만에 네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



지동섭 SK온 CEO가 송리원PM에게 보낸 친필 카드와 선물바구니.



송리원PM과 아내 차지혜 씨. 왼쪽부터 설록, 리지, 록시, 비전 /SK온

입사 선물처럼 찾아온 네 쌍둥이 소식에도 부부는 걱정이 앞섰다. ‘아이 넷을 어떻게 키우는가’하는

현실적 고민 때문이었다. 부부의 걱정대로, 임신 순간부터 피부에 와 닿았던 문제는 의료비였다. 임신 기간 정기검진이 잦았고, 출산 이후에도 0.9~1.3kg으로 태어난 네 쌍둥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입원해 적잖은 비용이 들었다.

다행히 의료비 부담은 SK온의 직원 복지 덕분에 크게 덜 수 있었다. 송PM 부부가 SK온은 직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이들의 엄마인 차지혜 씨는 “병의 경중이나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SK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

다”고 말했다.

구성원 행복을 추구에 초점을 맞춘 SK온의 근무 시스템도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휴가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아내 차씨는 “고위험산모라 병원에 자주 갔는데 그 때마다 남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동행할 수 있어 큰 의지가 됐다”고 말했다.

SK온은 송PM 부부의 네 쌍둥이 출산 소식을 사내 방송을 통해 전사적으로 알리고 축하했다. SK온은 특히 송PM의 애로사항을 듣고 네 쌍둥이 출산 기념 선물로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동섭 CEO도 친필 카드와 선물바구니를 보내 출산을 축하했다.

송PM은 “SK온에 와서 아내가 임신을 결심했고, 복지제도 덕분에 부담도 훨씬 줄었으니 SK온이 낳고 기른 네 쌍둥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에쓰오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1억 쾌척

취업준비금·멘토링 등 사용
“이웃에 든든한 후원자 될 것”

에쓰오일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이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돕는 ‘굿잡드림’ 사업을 시작했다. 에쓰오일이 지원한 후원금은 총 2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취업 캠프 및 멘토링 등을



S-OIL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S-OIL 김평길 전무,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에쓰오일

지원하는데 쓰인다.

에쓰오일 굿잡드림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

비하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돕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굿잡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하고자 한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롯데케미칼

IF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롯데케미칼이 2023 iF 디자인 어워드(iF International Forum Design)에서 2개의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작품은 3D 레이저 마킹이 적용된 재활용 소재의 화장품 용기 ‘INSIDE MARKING’과 저시력자를 위한 점자 패턴이 적용된 향바 이러스 ‘에버반(Everban)’ 소재의 컨트롤러 “FEELING” SAFE ‘이다. ABS 플라스틱 소재의 두 제품은 Professional Concept 부문의 Product Concepts 카테고리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허정윤 기자

HD현대오일뱅크, ‘ESG 7 챌린지’ 성료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시행
임직원 자발적 참여... 상품 증정

HD현대오일뱅크가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시행한 ‘ESG 7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ESG 7 챌린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 7개

를 선정해 임직원들이 이를 수행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미션은 ▲잔반 없애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텀블러/머그컵 사용하기, ▲페이퍼리스 회의하기, ▲ESG 관련 자료 열람하기, ▲계단 이용하기, ▲전기 절약하기이다.

이번 챌린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깨끗한 미래’라는 ESG 비전

아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미션을 완수한 임직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팀에는 ‘앞으로도 ESG 함께하상’과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굿즈 등 부상이 수여됐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게 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ESG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인사

◆민주신문 △편집국장 조규상 △산업1팀장 송동엽 △산업2팀장 이인영 △금융·부동산팀장 김다빈

부음

▲서창진씨 별세, 서인석·인자·윤석씨

부친상, 안대성씨 장인상, 안진원(삼성전자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채원(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씨 외조부상 = 10일 오전 2시15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31-900-0444

▲임덕순씨 별세, 한은숙·한명식(태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한명

숙·한광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전 김포대 교수)씨 모친상, 정승동(전 동진정공 대표)씨 장모상, 박예신·주영희(덕원여고 교사)씨 시모상 = 10일 오전 6시42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 02-2258-5940



김희선씨가 KCC의 클렌체 주역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CC

KCC

‘하이 엔드 희선’ 영상 공개

KCC가 자사 유튜브 채널 KCC TV를 통해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 모델 김희선이 진행하는 고품격 토크쇼 ‘하이 엔드 희선(Hi & Heesun)’ 영상을 공개했다.

10일 KCC에 따르면 ‘하이 엔드 희선’은 KCC유튜브 채널이 기획한 콘텐츠로, 김희선이 KCC 본사를 방문해 클렌체 개발과정과 브랜드 의미 등 비하인드 스토리 소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실 돼가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최소한의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보유주택 수를 늘리는 주택투자는 언제나 시장의 한결같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종 보유세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의 중개수수료, 그 밖의 수리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이전과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급톱게도 다수의 전세 계약의 만료시기가 하락시장에 몰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집값 하락시기에는 이러한 강통주택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시작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은 대개 낮아진 시세보다도 더욱 낮은 금액에 낙찰된다. 게다가 그 금액에서 조세우선권에 따라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먼저 거둬 가면 임차인은 1순위 배당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과 명백한 전세사기가 구분된다. 집주인이 단순히 시장의 지속적 상승을 믿었다는 선의를

넘어 선순위 대출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당초 중개인, 감정평가사 등과 합하여 보증금을 시세보다 크게 올려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전세사기이고, 결국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은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인 것이다.

경찰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누적 사건수가 총 700여건이 넘고 피해액은 30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단순히 나누어 보아도 한 건당 금액이 3억~4억원이 가장 많다. 당연히 대부분 서민주택이고 수도권, 지방의 중소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내용은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 처분될 때 이를 유예, 정지하거나 우선 매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한도 4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저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주거비를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직접 보전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지만, 현실

적으로 어렵다.

지금의 사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 이미 비싼 가격에 계약을 이행 중인 세입자라면 대책을 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물론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계약 만료 전 선불리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보다는 우선 보증금을 낮추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다.

이는 향후의 시세 반등을 예상해서가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면, 차후에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고, 보증금 때문에 집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급매는 피할 수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사회전세사기 예방교육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서는 등기사항 하나 확인하는 것도 익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초의 거래의사를 밝힐 때는 임차인만의 중개사를 따로 선정하여 민감한 조건들을 먼저 검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집주인 측 중개사가 석연치 않게 공동중개를 거부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자.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드는 일은 소비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로이에아시아컨설팅 대표

불편한 진실, 제2의 경제사범은 또 나온다



기지수첩
구남영
(금융부)

#. “대표이사가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애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투자를 꽤나 한다는 주변 지인들도 많이 하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 30억원의 빚이 제 앞으로 있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추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 거래를 했는데 들은 적도 없습니다. 투자금 몇 억만 날린 줄 알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을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SG증권발(發) 추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직장인 B씨)

최근 변호사 사무소에 SG증권발 추가 폭락 사태에서 피해 본 개인투자자들의 회

생·파산 문의를 빙발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갭투자한 임대인의 파산 신청까지 속속 나타나며 ‘파산대란’ 일어나는 등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뒷북조사’가 이 같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꼽았다.

실제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는 475만명에서 1374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국정과제로 꼽혔음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에는 구멍이 뚫렸다. 분명한 점은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관련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추가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

목이다.

SG증권발 추가급락 사태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추가조작 의심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추가조작 징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항상 늦게 파악하고 장기간 조사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자본시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투자자가 늘어나는 데도 위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이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5월 11일 (음 3월 22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48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다. 60년생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2년생 힘찬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4년생 주변 증오독을 조심히 해야.

 소

37년생 가족이 헤어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49년생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6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3년생 동료 간에 서로 양보를. 85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호랑이

38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50년생 약속이 아침부터 발생. 62년생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밟다. 74년생 진로 수정은 신중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86년생 백일작정기도를 신성.

 토끼

39년생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51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63년생 노력은 복덕의 근간. 75년생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87년생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주의.

 용

40년생 돌아가신 분을 위한 산소에 가서는 경건하도록. 52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 결실. 64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76년생 이기적인 마음을 접도록. 88년생 젊은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뱀

41년생 발전이 느리니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이다. 5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65년생 외출 때 차량 점검. 77년생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89년생 시기심을 버리면 집에 복이 온다.

 말

42년생 전해오는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54년생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66년생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78년생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90년생 낮에 음주가웁 말인가.

 고양이

43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도록. 55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67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79년생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91년생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오니 평소 겸손미덕을.

 원숭이

4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6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6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80년생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온 마음이 날아갈 듯 넉넉하다. 92년생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 수가 있을 것.

 닭

45년생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57년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몰려올 때도 있다. 69년생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81년생 이사 준비로 바쁜 데 이웃사촌이 방문하여 복잡. 93년생 스트레스비만에 주의하자.

 돼지

46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58년생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70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2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4년생 많은 시간의 인생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돼지

47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피라. 59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71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83년생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95년생 지금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김상회의四季

풍수, 건물을 볼 때는



슈퍼리치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다. 슈퍼리치는 말 그대로 엄청난 게 부유하다는 뜻이다. 엄청난게 부유하다는 건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걸 말할까. 금융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슈퍼리치의 자산 평균은 3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상징적으로 슈퍼리치를 표현하는 적합한 말이 건물주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다. 나이를 떠나서 건물주가 된다는 건 그만큼 부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된다. 얼마 전 사업으로 큰돈을 번 슈퍼리치가 상담을 청했다.

건물을 사려는데 풍수 관점에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인 만큼 생각할 것도 많을 것이다. 건물을 볼 때는 직충(直沖)을 조심해야 한다. 도로가 건물을 향해 달려드는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건강이나 자산에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 앞에 지하도나 철도가 있는 건물도 좋지 않다.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끊어져서 기거하는 사람의 발전이 없고 재물운도 따라서 막힌다. 드나드는 길이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물에서는 무얼 해도 뻘어나가기 힘들다. 반대로 건물 앞이 트여있으면 좋은 자리로 본다. 복잡한 도심에서 앞쪽이 시원할 정도로 트이기는 힘들지만 숨 막히게 압박하는 다른 건물이 없고 시야가 비교적 편안하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자리와 형태는 넓고 평평한 모양이 길하다. 삼각형 다각형 모양 지나치게 높은 언덕 경사진 곳에 자리하면 좋다고 하기 힘들다. 땅의 기운이 살아있는 건물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활력이 돌게 한다. 슈퍼리치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되는 것이다. 건물 풍수가 중요한 이유다. 풍수를 꼼꼼하게 챙기는 슈퍼리치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큰 자산을 갖게 된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5	9		1	3		
4				2				9
5				1				7
		8	7		3	9		
7				9				6
1				3				5
		2	1		9	4		

				4		1		
	6			7				9
				8				
3				9				5
	9	1	7		3	4	8	
4				1				2
				2				
	1			4				7
				1	7			

정답

9	8	7	6	2	1	3	5	4
6	6	1	2	7	9	9	2	8
5	2	2	9	8	8	6	7	1
9	8	9	7	6	2	3	1	2
1	7	6	8	9	2	8	2	9
2	8	2	1	9	7	6	9	
6	9	2	2	8	1	8	7	
2	1	8	9	9	7	2	8	6
7	2	8	1	8	6	9	9	2

8	2	9	2	9	1	6	7	8
8	2	9	6	7	8	2	1	9
6	7	1	9	2	8	8	2	
2	8	6	8	1	9	2	9	7
9	8	7	8	9	2	1	6	2
9	1	2	7	6	2	9	8	8
1	9	2	9	8	6	7	8	2
7	6	8	2	2	9	8	9	1
2	9	8	1	8	7	9	2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고용불안 보다 활용 가치 커… 역량 강화 돕는 부조종사”

MS, AI시대 2023 업무동향지표
반복적 업무 줄이고 창의성 높여줘
AI 통해 업무능력 올리는 3가지
디지털 부채·동맹·AI적성 등 필요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 가져 올 것

한국 근로자 절반이상이 AI로 고용 안정성을 우려하면서도 업무는 AI가 맡아주길 기대했다. 사람과 AI의 융합이 업무 효율을 올려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MS 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동향지표 2023(WTI 2023)을 발표하고 AI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업무동향지표 2023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집계된 수 조개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 시장 트렌드를 분석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은 이날 화상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여 줄 것이다”라며 “AI 기반의 도구들은 디지털 부채(Digital Debt)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AI 적성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MS 제공

과 역량 강화를 돕는 등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AI를 통해 업무능력을 올리는데 중요한 3가지를 공개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디지털 부채 ▲새롭게 등장한 AI근로자 동맹 ▲AI적성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WTI 2023에 따르면 근로자 62%는 정보 검색,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창작이나 숙고, 사회적 협업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64%(한국 62%)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런 근로자들은 혁신과 전략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3.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앱 사용 패턴(평일)을 보면,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57%, 창작 업무에 43%의 시간을 소비했다.

이후 AI 발전에 뒤따라오는 화제 중 하나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전언했다. 한국 관리자들도 34%의 높은 비중으로 AI의 가치를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는 인력 감축(18%)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그러면서 AI의 발전은 사람과 컴퓨터 간 새로운 상호 작용 모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AI가 단순히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조직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이 AI와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업무동향지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미 AI가 업무에 주는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AI는 업무를 돕는 부조종사로서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가져와 직원 개인의 창의적 업무를 돕고 나아가 조직의 성공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Microsoft 365 Copilot) 및 마이크로소프트 비바(Microsoft Viva)의 신규 기능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AI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지난 3월 공개하고 세브론, 제너럴 모터스 등 20개 기업과 이를 테스트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선별된 고객

사 600곳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공, 더 많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MS는 AI 기반 ‘MS 365 코파일럿’ 서비스를 선별된 기업에게 제공한다. 아직 한국어 지원과 일반 사용자 대상 서비스 일정은 미정이다.

오성미 모던 워크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어에 대한 지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글 인식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발표되는 소식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MS 365 코파일럿’ 서비스는 기업 고객용이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파일럿은 MS 서비스 사용자의 ‘AI 비서’ 역할을 한다. 코파일럿은 팀즈(Teams), 파워포인트(PowerPoint), 아웃룩(Outlook), 원노트(OneNote), 루프(Loop), 비바 러닝(Viva Learning) 등에 추가됐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농장서 식당까지… SKT, ‘식품 밸류체인’ 혁신

**에스푸드홀딩스와 푸드테크 협력
농축산물 생산·가공 등 AI 접목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시너지 확대**

SK텔레콤이 종합식품기업 에스푸드홀딩스와 AI(인공지능) 기반 푸드테크 기술 개발에 나선다.

SKT와 에스푸드홀딩스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물류·판매·추천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 밸류체인(Value Chain) 전방위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에스푸드홀딩스 조성수 대표, 김민정 스마트푸드네트웍스대표, 이승연 메디콜라 대표 등 에스푸드 관련 경영진과 이종민 미래R&D담당, 양승지 Vision R&D 담당, 최낙훈 Industrial AIX CO 담당을 비롯한 SK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스푸드홀딩스는 존코델리미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식품제조기업 에스푸드를 비롯 콜드체인 풀필먼트 및 외식 식자재 커머스 업체 스마트푸드네트웍스, 메디컬 푸드테크 기업 메디콜라

등을 보유, 식품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SKT와 에스푸드홀딩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T의 AI 기술을 에스푸드의 농장에 적용, 사육환경과 가축 행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한편, 비전 AI와 IoT 센서를 활용한 사육 환경 모니터링, 최적의 사료배합 비율 분석 등 협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물류센터 자동 입고 및 분배 시스템 구축, 트럭 운송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등에 로봇 및 비전

AI 기술을 적용하고, 식자재 수요 예측 및 자동 발주 시스템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SKT는 메디콜라가 진행중인 질환 맞춤형 식단(메디푸드) 연구에 AI 기술을 접목해 개인의 질환·체질·특성과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식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I-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분야로도 양사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수 에스푸드홀딩스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에



조성수 에스푸드홀딩스 대표와 이종민 미래R&D담당이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SKT

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KT, 로봇 분야 등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초격차 1000+프로그램 민간검증’
트랙서 KT 지원 5개사 최종 선발**

KT가 중소벤처기업부·한국표준협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트랙에 참여해 KT와 협업하고 있

는 5개사가 최종 선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첨단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0대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사를 발굴하기로 하였고 올해 150개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

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의 사업과 자금과 기업수요에 따라 최대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사업 등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AI반도체 설계 스타트업(랩리스) 리벨리온은 KT가 2022년 7월초 300억원 규모의 전략투자를 했고 리벨리온에서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아툼’을 KT IDC에 적용예정이며 KT에서 개발 중인 초거대 AI서비스 ‘믿음’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모래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KT가 2021년 전략 투자를 진행한 이후 AI 학습용 클라우드 서비스, 초거대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레벨업은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백엔드닷에이아이(Backend.AI)’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KT에서 개발 중인 초거대 AI서비스 ‘믿음’의 서비스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리벨리온과 모래 등과 함께 한 국형 AI반도체 풀스택을 위한 동맹을 구축해 AI산업 공용인 엔비디아에 대한 국내 AI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고 대한민국 AI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24일까지… 불응 과태료 최대 1억
▲ 늘어난 가는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검사 인력은 태부족
/사진 뉴시스

▲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 전 세사가 첫 사례
▲ 서울시, ‘유망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영등포구, 반지하 1236가구 주거 상황 지원
▲ 서울 지하철역, 얼마나 붐비나… AI로 혼잡도 산출
/사진 뉴시스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매출·영업익 신기록
03



Life

야구장 반입
日 수입부활
캔맥주 대격전
L1



재정난에 파산 신청한 한국국제대, 20번째 폐교 대학 되나

〈2000년부터〉

임금체불 등 심각한 재정난 시달려
정부 지원 끊기자 신입생 수 급감
교육부, 파산 결정 시 폐교절차 진행
부지활용 등 부작용 최소화 급선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파산이 선고 되면 한국국제대는 2000년대 들어 폐교 되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를 대상으로 9일부터 9일간의 종합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국제대의 체임 전·현직 교직원 50여명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구성원들은 지난 4월 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5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파산이 내려지면 교육부



한국국제대학교 전경.

/한국국제대학교 페이스북

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대상으로 편성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은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100여억 원 체불, 공과금 10여억 원 체납 등 재단

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에 그치며 충원율은 7%도 이루지 못했다. 교직원은 8명, 교수는 40여 명만 남았다. 앞서 1978년 진주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2003년 입학정원 1265명의 4년제 대학으로 출범했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

기 시작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던 2018년부터다. 이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끊기면서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앞서 2011년과 2015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통보를 받으며 재정난을 겪던 상황이었다. 수년간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퇴직 교직원들이 지난해 말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학교 통장이 압류되면서 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체불 임금 지급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말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교직원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

단하고 지난 3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남아 있는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로 했다. 대학가 고위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학비를 시작으로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회생 기회가 주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줄이어 생길 수 있는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 처리와 부지의 지역 활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 폐교를 포함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9곳이다. 지난 2000년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서해대 ▲동부산대 ▲한려대 등이 폐교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시민 건강 지켜요” 강화도, DMZ ‘평화관광’ 명소로 가꾼다

서울시, 건강분야 리딩도시로 도약
상담 지원 등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인프라▲

서울시가 100세까지 건강한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어 건강 분야 글로벌 리딩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응급처치 인프라 확대 ▲안전한 밥상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시민 마음건강 돌봄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자살·우울 같은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청년층

과 임산부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상담을 실시해 이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마음건강검진 결과지(마음처방전) 개발 등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위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경찰·소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올해 단계별(기본·일반·심화)·대상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과 고위험지역·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약

12억원을 투입한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 맞춤 교육으로 1가구당 1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지역 자원과 협력해 고품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자치구별 CPR 교육센터를 운영해 연간 70만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4148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 간편식 취급업소, 온라인 유통 식품, 집단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소를 연 2회 전수조사하고, 무인 판매점 순회 방문 지도를 1년에 4회 실시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공모사업 1위 선정… 국비 7억 확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3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 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평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공모 형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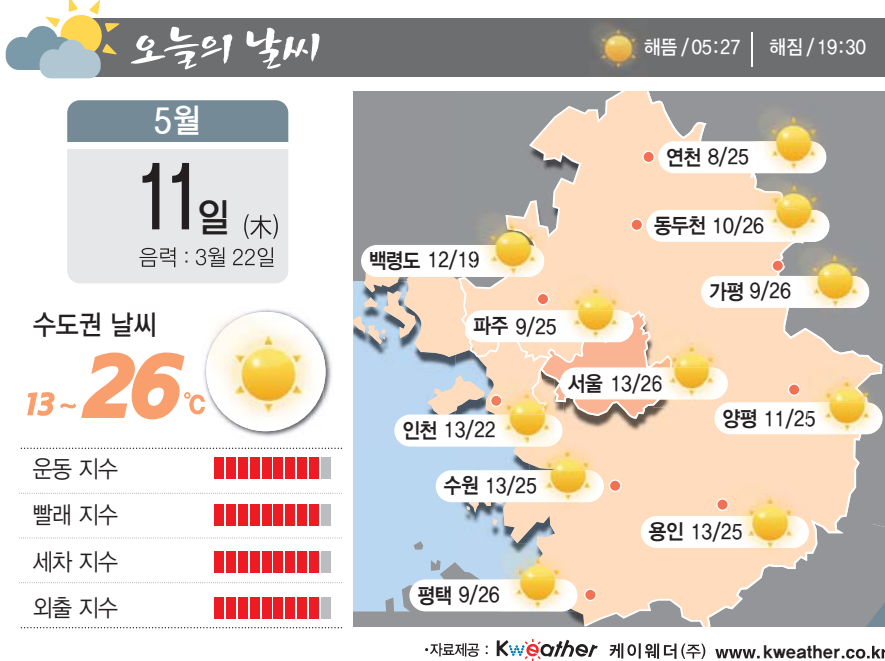
시는 강화군과 협업해 대한민국 DMZ 접경지역 중 유일한 ‘섬(아일랜드)’ 지역이라는 인천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사업으로 제안했다. 콘서트와 함께 DMZ 접경지역 걷기와 방문인증 이벤트 ‘DMZ 평화랜드 하이커’, 지역관광 및 체험 홍보부스 ‘DMZ 평화랜드 홍보관’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국비 7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더해 총 9억 원을 들여 8월에서 9월까지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당산동 일대, ‘한강뷰’ 명품 주거단지로

한강조망 확보, 최고 39층 아파트 조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가 한강을 품은 최고 39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한강공원과 가깝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로막히는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에서도 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단지를 계획했다. 시는 주변 지역의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 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조선왕릉 숲길 9곳, 6월까지 한시 개방
▲축구 64년만의 아시안컵 정상도전… 11일 초 추첨 /사진 뉴시스

▲女배구 흥국생명, 단장 다시 교체…허정민 상무 선임
▲아이유 측, 누리꾼 표절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법적대응



▲방탄소년단 제이홉·슈가 OTT 다큐, 6월 극장에도 걸린다
▲여성주의 작가 ‘키키 스미스’ 개인전, 페이스 갤러리 서울에서 전시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관장과 함께하는 힘으로

안양 KGC 인삼공사 프로농구단
2022-2023 챔피언 결정전 우승

당신은 인파 가득한 지하철을 뚫고 달려왔고
관중석에서도 끝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았고
함께 하는 힘으로 승리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습니다

KGC인삼공사



정관장 V4
감사 프로모션

- 기간 : 5/15(월)~5/21(일) • 채널 : 전국 정관장 매장 (면세 제외)
- 행사내용 : 20만원 이상 구매 시 4만원 할인 (멤버스 한정/인 1회/일부 품목 제외)